

해방 직후 일본군의 귀환 수송과 부산항*

김윤미**

- I. 머리말
- II. 일본군의 병력 현황과 수송계획
 - 1. 일본군의 병력 규모와 수송논의
 - 2. 수송방침과 유수업무
- III. 수송준비와 부산항을 통한 귀환
 - 1. 연락부 설치와 수송준비
 - 2. 부산항을 통한 귀환
- IV. 맺음말

<국문초록>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서 팽창해 갔고, 제국민과 식민지민들은 확장되는 제국 영토 내에서 빈번한 이동을 했다. 일본도 동아시아에서 세력권을 구축하며 반세기에 걸친 다방향의 이동을 주도했다. 이러한 흐름은 1945년 일본 제국이 붕괴되면서 대전환을 맞았다.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인구이동은 한순간에 대규모 집단이동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것은 인구의 재배치이기도 했다.

대이동이 시작되는 1945년 부산은 경계지가 되었다. 일본 제국 속에서 부산항은 관문의 역할을 했지만, 일본 제국이 붕괴된 이후 미군정 체제 속의 부산은 조선과 일본의 국경이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 남부에 주둔했던 일본군 귀환의 전반을 정리하고, 부산항을 통한 일본군 귀환을 재조명해보려고 한다.

‘안정적인 귀환’을 주도하고자 했던 일본측의 계획은 일정부분 미군이 수용했지만, 조선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귀환한다는 방침은 허용되지 않았다. 일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군을 가장 먼저 수송한다는 미군의 방침에 따라 대규모 군사이동이 시작되었다. 미군은 일본군을 사단 단위, 혹은 대규모로 이동시키지 않았다. 통제 가능한 수준의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었다. 조선 남부에 주둔한 미군은 가장 먼저 일본군 무장해제와 철수를 실시했다. 일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군정의 행정 업무가 아니라 미군의 첫 번째 군사작전이었다.

주제어 : SCAP, GHQ, 송환, 인양, 재조일본인, 조선군, 이동, 경계

I. 머리말

20세기는 전쟁과 이동의 시대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서 팽창해 갔고, 제국민과 식민지민들은 확장되는 제국 영토 내에서 빈번한 이동을 했다. 일본도 동아시아에서 세력권을 구축하며 반세기에 걸친 다방향의 이동을 주도했다.

이러한 흐름은 1945년 일본 제국이 붕괴되면서 대전환을 맞았다.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인구이동은 한순간에 대규모 집단이동의 형태로 바뀌었다.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국가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환을 선택해야 했다. 이것은 인구의 재배치이기도 했다.

소련, 중국, 만주, 남태평양 등 일본 제국의 전쟁터였던 곳에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있었고, 미군과 소련군에 억류되어 있었다. 해외에 있던 조선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했다.¹⁾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귀환을 준비했다.²⁾

대이동이 시작되는 1945년 부산항은 경계지가 되었다. 일본 제국

-
- 1) 귀환에 대해서는 조선, 일본, 미군의 입장에 따라 송환, 귀환, 인양, 복원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귀환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였다.
 - 2) 재조일본인의 귀환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가연, 「연구동향:해방 직후 재조선일본인 '귀환[歸還]'연구의 성과와 전망」(『지역과 역사』, 부경 역사연구소, 2020.)을 참조할 수 있다.

속에서 부산항은 지역을 연결하는 지점이 되었지만, 일본 제국이 붕괴된 이후 미군정 체제 속의 부산은 조선과 일본의 국경이었다. 부산항은 해외에서 부산으로 귀환하는 조선인들, 조선에서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교차점이 되었다. 그동안 조선에 터를 잡았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인양' 혹은 '복원'되고, 여러 이유로 조선을 떠나야 했던 조선인들은 부산항으로 '귀환'했다.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인 귀환은 3단계에 걸쳐 전개되었다. 1단계는 1945년 9월~11월 진행된 남한지역의 군인·군속의 무장해제와 귀환이고, 2단계는 1946년 3월~4월 진행된 남한지역의 민간인과 중국을 비롯한 이북에서 내려온 일본인들의 귀환이었다. 3단계는 1946년 3월~12월 북한에서 남하한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귀환이다.³⁾ 이 글에서는 1단계에 전개된 일본군 귀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로 가장 먼저 건론되는 저서는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朝鮮終戦の記録』 4권이다. 많은 자료를 집대성한 이 책은 이후 귀환을 연구하는데 토대가 되고 있다.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관련자와 단체들이 기초조사를 시작하여 '인양사' 혹은 '인양원호국사' 형태로 발간한 자료집이 다수 있다.⁵⁾ 축적된 사료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제국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서 발간도 활발하다.

한국에서 재조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

3)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56쪽.

4)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 1~3권, 巖南堂書店, 1979.

5) 대표적인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引揚援護廳, 『引揚援護の記録』, 1950(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厚生省援護局, 『續引揚援護の記録』, 1955(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續續引揚援護の記録』, 1963(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歩み』, ぎょうせい, 1997; 厚生省社會援護局援護50年史編纂委員會, 『援護50年史』, ぎょうせい, 1997.

이다. 그러한 가운데 귀환 연구는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연식은 재조일본인의 귀환 전반을 고찰하며 미군의 일본군 귀환 정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했다. 유지아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에서 조선, 일본, 미국 관계 형성,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미군이 진주한 후에도 일본군이 자체적으로 무장해제와 수송, 그리고 귀환을 실행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조건은 조선이 해방되었음에도 일본군이 여전히 한반도의 치안을 장악했다는 점에 주목해서 미군이 진주해서도 일정한 군사력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⁶⁾ 미군이 생산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군의 인식과 일본인 귀환을 다룬 신재준의 글, 미군이 조선 남부지역에 배치되는 과정과 역할을 심도 깊게 살펴본 송정현의 연구는 귀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혀주었다.⁷⁾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일본군 귀환의 전반을 정리하고, 이 글에서는 부산항을 통한 일본군 귀환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남부에서 18만여 명의 일본 군인과 군속이 귀환했다⁸⁾. 이 중 귀환항으로 지정된 부산을 통해 두 달 동안 10만여 명이 이동했다. 철도와 선박을 이용해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송하는 과정은 이후 민간인 귀환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군의 귀환에 대한 자료는 일본군군과 미군이 생산한 자료가 다수 있다. 조선군잔무처리반이 편철한 『昭和20.9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 등의 기록,⁹⁾ 경성일본군연락부장이 작성한 『在南鮮日本

6)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8, 2007. ;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지속과 귀환, 『한국학논총』 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7) 신재준, 1945~46년, 在朝鮮일본인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 『군사』 104, 군사편찬연구소, 2017. ; 송정현, 『미군정의 지방 통치 연구(1945-46)』,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8) 일본군 귀환인원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에는 군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후생성에서 발간한 『援護50年史』에 따르면 조선에서 귀환한 일본 군인·군속의 수를 복한 25,391명, 남한 181,209명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일본군과 군속의 귀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軍部隊概況報告』¹⁰⁾ 교통병참반이 생산한 『歸還輸送に關する綴』을 수집해서 분석했다.¹¹⁾

미군의 주둔에 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대학 소재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 게인(William J. Gane)보고서를 비롯해서 일일보고서, 주말보고서, 부대사 등을 참고했다.¹²⁾ 특히 미육군군사연구소의 자료를 국사편찬에서 수집하여 간행한 『주한미군사』를 많이 참조하였다.¹³⁾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자료집도 수집이 용이했다.¹⁴⁾

일본군 귀환과 미군 점령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공간되거나 웹상으로 제공되는 자료만도 방대하다. 이 글에서는 자료를 파악하고 향후의 과제를 찾아보면서 연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 9) 朝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朝鮮軍司令部, 『昭和20.10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2)』,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602400); 朝鮮軍司令部, 『昭和20.10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3)』,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615700)
- 10) 京城日本軍連絡部長,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0600)
- 11)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 12) Repatriation-from 25 Sept. 1945 to 31 Dec. 1945」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 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5 of 6)
- 13)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4, 선인, 2014.
- 1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한 미 제40사단 정보참모부 일일보고서(1945.9-1946.1)』; 『ANNEX TO THE HISTORY OF THE 40th INFANTRY DIVISION IN KOREA(SECTION HISTORIES)』, 1993.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駐韓美軍情報日誌 1, 1945.9.9-1946.2.12 =HQ,USAFIK G-2 Periodic Report: 『駐韓美軍情報日誌 2, 1946.2.13-1946.9.16 =HQ,USAFIK G-2 Periodic Report: 『駐韓美軍情報日誌 3, 1946.9.17-1947.3.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88 등.

II. 일본군 병력 현황과 수송계획

1. 일본군 병력 현황과 수송논의

일본은 미군이 상륙하기 이전 귀환을 준비했다. 1945년 8월 16일 교통국은 수송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수송하려던 것은 식량, 소금, 섬유, 잡화, 된장, 간장 기타 생필품이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일본인 수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본인 수송에서는 군사시설과 전력증강 관계 공사, 공장이나 사업장의 노무자를 순차적으로 수송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인력 충원을 고려했다.

이처럼 제일 먼저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송하려는 것은 식량과 생필품이었다. 해방 이전까지 일본의 식량은 만주와 조선에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심각한 식량난이 예견되었다. 미군은 일본의 식량 문제를 고려하여 일본군을 모두 귀환시킬 수 없다며 제주도 등에서는 월동준비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주둔 일본군은 1946년 초여름까지 식량공급 계획을 세웠다.¹⁵⁾

일본군의 귀환 지침과 미군의 정책에 따라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다. 부산 교통국에서는 8월 17일 처음으로 귀환선에 대한 협의회를 열었다. 해방 직후 부산항에는 관부연락선이 한 척도 없어 히로시마(廣島) 철도국에 선박배정을 의뢰했다. 8월 21일 교통국 나타카 총무과장은 내무성과 수송선 교섭을 위해 도쿄행 비행기를 탔다. 귀환선 수배와 허가를 협의하고, 8월 23일 서울로 돌아왔다.

9월 10일 서울에서 열차 2대, 대전에서 열차 1대를 부산으로 향하도록 배정했다. 승차하는 자는 특별수송승차증명서를 받도록 했다. 귀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탁송하는 짐도 정체가기에 이르자 9월 14일 이후 미군의 명령으로 민간 수송은 금지되었다.¹⁶⁾

15)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338~339쪽.

16)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122~123쪽.

조선군사령부는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 순서를 ①군인 가족, ②관공리 가족, ③민간인, ④관공리, ⑤군인으로 설정했다. 일본군을 마지막에 귀환하도록 한 것은 조선에서 일본의 행정망과 물리력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해방 직후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약 25만명으로 추산된다¹⁷⁾. 이 중 조선 남부에 주둔한 병력은 18만명 정도였다. 1945년 해방 직후 항공대의 경우 미군이 상륙하기 전 이미 일본으로 철수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 해군항공대의 경우 8월 25일 부대 전원이 귀환했다.¹⁸⁾

조선군사령부는 미군과 정전협정을 위해 8월 27일 현재 각 부대의 병력, 군마, 소총과 총검 등의 주요 병기, 군수품 현황을 긴급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¹⁹⁾ 이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해방 직후 조선 남부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은 17만 9720명, 군마는 9,262필, 군용차 1,562대로 <표 1>과 같다.

<표 1> 해방 직후 조선 남부의 일본군 병력 현황표

관구	인원	말	자동차
경성사관구	57,110	4,070	670
대구사관구	13,480	1,280	36
광주사관구	34,710	1,260	250
부산요새관구	15,420	135	115
여수요새관구	680	7	3
제주도 내	58,320	2,510	490
합계	179,720	9,262	1,564

출전 : 京城日本軍連絡部長, 「職員表」,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

17)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지속과 귀환, 『한국학논총』 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8) 朝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9. 889쪽.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19) 森田芳夫 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1권, 巖南堂書店, 1979, 516쪽.

미군정은 일본의 계획과 달리 일본군 귀환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미군정의 일본인 귀환 순서는 ①현역 일본군, ②휴가 중이거나 제대한 군인과 그 가족, ③옛 일본경찰 등 바람직하지 않은 자, ④神官, ⑤일본인 광산노동자, ⑥일반 민간인 중 원호대상자, ⑦일반 민간인, ⑧고위 공직자와 회사간부, ⑨교통 및 통신요원 순이라 발표했다.²⁰⁾

미군이 가장 주의를 기울인 집단은 일본군이었다. 군의 수송은 조선군사령관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가 직접 미 제24군단의 지휘를 받아 실시했다. 일본군의 귀환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외사과 업무로 진행되었다.

일본이 일본군을 가장 마지막에 수송하려고 했던 반면, 미군은 일본군을 가장 먼저 수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연합국이 합의한 포츠담 선언 제8조 영토조항, 제9조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본토귀환과 관련한 것이었다. GHQ는 점령임무와 상관관계가 명확한 군인, 군속의 귀환을 먼저 실시했다. 이 업무가 점령군의 군사작전과 지령을 담당하는 G-3 참모부, 그 중에서도 작전과에 배당된 것을 보아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귀환 문제를 군사작전의 연장선에서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주둔하던 군인, 군속 귀환 업무는 주한미군 산하 제24군단이 직접 담당하고, 주한미군정 군단의 작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²¹⁾

2. 수송방침과 유수업무

일본은 1945년 8월 25일 <제국육군복원요령세칙>(1945년 8월 18일 陸機密 제36호)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일본군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일본 외 지역 부대 복원은 9월 10일 제정된 <일본 외 지역 부대 복원 요령>(1945년 9월 10일 陸機密 제5908호)에 의해

20) 森田芳夫 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篇』2권, 巖南堂書店, 1979, 20쪽.

21)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28, 2007, 참고.

시작되었다. 인원, 군마, 군수품 등에 관한 각종 처리를 완료한 후, 수송계획에 따라 복원지로 이동하고 복원부대로서 실시하는 유수업무(留守業務)를 정리한 다음 편성을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²²⁾

유수업무에 대해서는 1945년 9월 23일 육군대신이 <외지부대유수업무처리요령>을 하달했다.²³⁾ 육군유수부대 업무부에 진속된 자는 유수명부 사본 2통, 사망자연명부, 생사불명자연명부, 은전관계 증거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가능하다면 유수택(留守宅)을 정리해서 귀환하도록 했다. 유수명부는 일본 육군 소속의 군인과 군속 명단으로, 외지부대소속자의 현황과 유수택 관계 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근간이 되는 자료로 성명, 본적지, 생년월일, 징집년, 임관년, 병역, 병종 등을 기록했다.²⁴⁾

사망자연명부와 생사불명자연명부 기록은 중일전쟁시기부터 사망자와 생사불명자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사망자연명부는 각 부대마다 본적지 연대로 구분하여 병역의 종류, 관등급, 본적, 유수담당자, 사망년월일, 사망구분, 사망통보년월일, 사망장소, 유골유무 등을 기입했다. 생사불명자 연명부는 앞의 구분에 준하여 생사불명이 된 상황을 부기했다.²⁵⁾ 이외에도 수송된 환자 처리, 유골과 유품 처리, 각 부대장 진급, 인사관계, 공적관계 등을 규정하고 가능한 자세한 기입을 지시했다.

22) 厚生省社會・援護局援護50年史編纂委員會, 『援護50年史』, (株)ぎょうせい(東京), 1997.

23) 陸普第1880号, 『帝國陸軍(外地部隊) 復員實施要領細則』, 1945.9.23.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31200)

24) 유수명부는 1944년 11월 육군성에서 제정한 '유수업무규정'에 따라 제국영역 내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작성된 명부이다. 대체로 1945년 1월 조사 시점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조사는 계속했다. 유수명부에는 군인으로 동원된 16만여명의 조선인 명단이 있어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1993년 일본정부에서 이관되어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유수명부에 관해서는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을 참조할 수 있다.

25) 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9. 8 82쪽(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1945년 10월 2일 조선군관구사령부는 朝參動特 제14호 <조선 내 육군부대 복원에 관한 세부 지시>를 작성하고 58A, 120D, 150D 160D 320D 5FD 경성사관구, 대구사관구, 광주사관구, 부산요새사령부, 여수요새사령부, 제5철도총감부(五鐵監), 조선헌병대사령부, 인천조병창 등에 배포했다. 인원처리, 입원환자 일본 귀환, 경리 관계 사항, 위생재료 처리, 수의재료 처리, 군용동물 처리, 복원관리관 임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²⁶⁾

조선 주둔 일본군의 귀환 세부 지침은 <38도 이남 조선군관구부대 귀환수송요령안>이 확인된다.²⁷⁾ 이 건에는 발신처, 수발신일 등의 첨부문서는 없다. 다만 이문서 다음으로 9월 27일 군참모장이 발신한 수송가능 선박현황에 대한 전보서가 있어 9월 27일 이전 교통병참반에 접수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 요령안은 부산 이외의 부대를 어떻게 철도로 부산항까지 수송할지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승선하는 항구는 부산이었다. 귀환에 대해 미군과 일본군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지침이었다. 부산항을 귀환항으로 하고 여수항과 목포항의 사용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일본 귀환항은 하루 2,000~3,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하카다(博多)를 희망했다.

수송은 미군이 주둔하면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9월 26일 혹은 27일을 첫 수송일로 설정하고, 11월말까지 관부연락선을 이용해 수송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필요시 미해군의 함선 지원도 고려했다. 수송순서는 가장 먼저 진해와 부산지구의 해군였다. 두 번째는 부산 부근의 육군, 세 번째는 대전 이북의 육군, 마지막으로 기타 육군이였다. 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항공부대와 부상병이었다.

수송기간을 두달로 하고 지역별 승차인원수와 계획을 수립하는데,

26)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1039~1047쪽.

27)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1131~1141쪽.

〈표 2〉와 같다. 표의 발차역을 살펴보면 대전지구, 대구지구, 이리와 정읍, 광주지구, 여수지구 순으로 철도 수송이 계획되어 있다.

〈표 2〉 일본군 철도 수송 계획

발차역	인원	일수	열차수
평택	4,910	X+(0~3)	3
천안	11,600	X+(4~9)	6
조치원	4,730	X+(10~12)	3
대전	14,300	X+(18~20)	8
김천	1,260	X+21	1
대구	11,400	X+(22~27)	6
밀양	5,780	X+(28~30)	3
영주,안동,영천	1,750	X+31	1(2)
포항	1,914	X+32	1(2)
경주	2,534	X+(33~34)	1.5(3)
울산	3,200	X+(34~35)	1.5(3)
마산	2,100	X+36	1
진주	4,290	X+(37~38)	2
서천	2,150	X+39	1
논산	2,160	X+40	1
이리	7,100	X+(41~44)	4
군산	5,160	X+(45~47)	3(5)
정읍	6,270	X+(48~51)	4(7)
의성	1,800	X+52	1(2)
광주	8,600	X+(53~57)	5(9)
전주	1,350	X+58	1(2)
00	150		
목포	5,000	X+(59~61)	3(5)
여수	1,370	X+62	1(2)
	109,508		

출전 :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1136쪽

수송계획에 따르면 1일 평균 2,000명이 기준이었다. 상황에 따라 승차역을 줄이기 위해 부대는 행군하여 승차역에 집결하는 경우도 있음을 명시했다. 경부선이 기준이 되지만, 지역에 따라 지선을 연결했다. 영주, 안동, 영천, 포항, 경주, 울산은 동해남부선을 경유하도록 했다. 서천은 군산까지 행군하여 군산역에서 승차했다. 군산, 정읍, 장성, 광주, 전주, 남원, 목포, 여수는 이리(익산)역에서 환승했다.

귀환 수송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할 사항들도 기재되어 있다. 12만명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식량을 지참하도록 하고, 숙영과 급양을 위해 필요한 칩구, 군마의 식량, 사무용품과 의약품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12만명을 수송하려고 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총 1천 80만엔이 산출되었다. 재료비, 숙소료, 급료, 수송비, 잡비 등 1인 지출비용을 한달로 계산한 총합이다.²⁸⁾

일본군의 귀환은 민간인의 여행과 수송을 제한하고,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특별열차를 편성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교통수단이 부족함에도 1945년 11월 초순까지 대강 마무리되었다. 군인들 귀환을 위해 9월 19~24일, 10월 4일~중순 서울역을 포함하여 모든 일반인들의 수송을 중지시켰다.²⁹⁾

철도를 통해 귀환항으로 집결한 일본군은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이동했다. 일본군 부대의 귀환절차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의 통제하에 부산에서 무장해제 하고, 최대한 일본의 선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본군 귀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선박이었다. 부산항에 투입된 2척의 기선은 미군이 부산항을 접수하기 전에 30여 회에 걸쳐 부산과 일본을 왕복했다. 하지만 미해군 지휘관들은 미군이 투하한 기뢰 40여개가 부산항 일대에 남아 있는 점을 불안하게 생각했다. 진해, 목포, 마산도 미군의 기뢰가 부설되어

28)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1138쪽.

29)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01쪽.

있었다. 하지만 부산이 이 세 곳의 항구보다는 나은 항구였으며 미군은 부산의 기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9월 27일 군참모장이 발신한 전보에 수송선박에 관한 내용이 있다. 연합국의 인가를 받아 조선 남부에 배선된 선박 현황, 특히 현재 운행하거나 운행이 가능한 것, 또는 예정 및 수일 내 수송인원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운행 확인된 선박은 덕수, 흥안, 운선, 장백 등 7척, 이외의 운행을 확인하기 어려운 7척이 있었다. 10월 6일 부산요새사령부에서 군참모장에게 보낸 문서에 부산-일본항만 간 취항 선박상황이 보고되어 있다. 이 중 흥안환과 덕수환은 철도성의 연락선이고, 그 외는 선박운영회의 선박으로 지정되었다.³⁰⁾

〈표 3〉 부산-일본 간 취항선박 상황 (1945년 10월 6일 현재)

선명	일본항만 명	승선가능인원
興安丸	仙崎	6,000
長白丸	"	1,500
德壽丸	博多	2,500
興寧丸	"	4,000
甘州丸	"	1,500
會寧丸	"	800
間宮丸	"	1,000
黃金丸	"	1,000
雲仙丸	舞鶴	2,100
白龍丸	"	2,000

출전 :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1048~1049쪽.

조선 남부에서 일본군을 철수시키는데 동원한 선박 규모는 지역마다 달랐다. 부산에서는 기선과 일본 해군의 소형 선박 등 40여 척의 일본 선박이 동원되었다.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 부대는 미해군의 상륙용주정 40여척을 타고 귀환했다. 진해의 일본해군부대는 일본해군 선박과 기선 30여척을 통해 철수했다. 인천 지구에서는 일본

30)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1048~1049, 1130쪽.

군은 병원선 1척과 각각 10척의 상륙용주정으로 구성된 미해군 2개 선단을 통해 철수했다.³¹⁾

미해군 제7함대의 LST(상륙용주정)은 4일간 조선과 일본을 왕복 하며 귀환자를 수송했다. 3척으로 구성된 1선단은 매주 2일마다 군 산에, 3일마다 목포에 4일마다 인천에 입항했다. 1척당 1천 명이 승선할 수 있었다. 1946년 1월부터는 조선인과 일본인 귀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LST운항수를 감소시켰다.³²⁾

Ⅲ. 수송준비와 부산항을 통한 귀환

1. 연락부 설치와 수송준비

미군정은 1945년 9월 초순경 남한에 진주하자마자 서울에 연락부 출장소만 남긴 채 조선군사령부를 대전으로 이전시켰다. 수송을 위한 공식 열차는 9월 23일부터 개시했다. 후속 조치로 9월 22일 조선 주둔 일본군에서 제대한 모든 일본인의 재입대를 지시했다. 미군은 9월 28일 무장해제된 군인들을 매일 4,000명씩 수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³³⁾

미군의 기록에는 실제 1일 2만 이하 일본군 또는 1만 이하 일본인 송환이 가능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군이 제의한 하루 1만 수송에 대해 미군은 하루 4,000명으로 제한했다. 수송이 시작된 후에는 수송 인원을 대폭 늘렸지만 초기에 미군이 이렇게 인원을 제한한 것은 통제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³⁴⁾

31)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 선인, 2014, 391~392쪽.
32)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 2권, 巖南堂書店, 1979, 29쪽.
33)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집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9~100, 247~258쪽.
34)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

9월 23일부터 제40사단 수송 장교는 담당 지역의 일본군 당국, 철도 관계자, 미해군 대표, 그 밖의 관련인사들과 매일 회의를 가졌다. 당초 계획은 하루에 4천 명을 귀환하는 것이었고, 4천 명이라는 수치는 부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9월 28일부터 제40사단의 공식적인 통제 하에 귀환이 시작되었다. 그 뒤로 기상 조건에 맞춰 귀환선이 매일 센자키(仙崎), 마이즈루(舞鶴), 사세보(佐世保), 하카타(博多)로 출항했다. 첫날에는 3,500명이 귀환했다.

일본인 귀환 수송에 관한 수송통제관의 세부지시가 전달되었다. 10월 2일 발령한 이 지침에 따라 9월 25일, 29일, 30일 세부지시는 폐기되었다.³⁵⁾ 열차수송이나 행군으로 부산항에 집결하고, 제1부두에서 일본군 연락반과 미군 현지 처리반 지시에 따라 무장해제 또는 신체검사를 받고 승선했다. 각 부대는 순서를 유지하며 중대 단위로 승선명부(영문 3통, 일본 2통)를 작성해서 승선 전에 미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군인들은 10일치의 식량을 휴대할 수 있었는데, 운반을 위해 트럭이 군대와 함께 제1부두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위생재료는 상륙지까지 휴대 가능 하지만, 병기나 탄약은 절대 금지했다. 또한 금은보석류 등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반입금지였다. 장교 500엔, 하사관병 200엔 이내로 개인이 휴대할 수 있었지만, 조선지폐는 가져갈 수 없었다.

귀환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일본군이 철수하고, 잔무정리를 위해 일본군은 각 사단(사관구), 요새여단, 이에 준하는 부대는 각 소재지에 연락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경성과 부산에는 연락부를 두고, 천안·조치원·김천·대구·이리·광주·여수에는 연락반을 두었다. 일본군 연락부 직원은 10월 중순 180명이었다. 연락부는 미군과 교섭, 일본 측 기관과 연락, 복선탈출 군인과 군속, 가족 수용, 귀환, 일본인 보호와 세화회 원조 등을 임무로 했다.³⁶⁾

店, 1964, 343쪽.

35)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1107~1114쪽.

일본군은 일본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연락반원의 통제에 따랐다. 10월 14일 부산연락부장은 군참모장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부산에서 시행했던 검사와 검역을 일본에 도착해서도 실시했다. 일본 내 철도 수송을 위해 가고시마(鹿兒島), 센다이(仙臺),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 후쿠오카(福岡), 시코쿠(四國) 등 대도시에 나눈 인원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때 일본 내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일부지역의 철도가 파손되어 군대수송의 문제가 발생했다. 부대의 식량은 개인당 10일분이었는데,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식량부족에 직면했다.³⁷⁾

부산에서 일본군 수송은 미군 제160연대에서 담당했다. 미군병사 185명으로 이뤄진 3개의 부대가 8시간 교대로 24시간 계속 활동했다. 각 부대는 검사반, 안내반, 접수반, 운송반, 정리반, 위생반으로 편성되었다. 40명의 검사반은 금지물품을 검사했고, 몇 명의 통역을 포함한 안내반은 역과 부두에 도착한 일본군인들을 해당지점까지 안내했다. 20명의 접수반은 귀환한 조선인의 인원수를 확인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운송반은 트럭 10여 대로 일본으로 가는 군인과 민간인의 화물을 운반했다. 정리반은 15명 가량으로 귀환하는 일본인의 물품과 화물을 구분하고, 창고로 이동시켰다. 위생반은 부두에서 필요에 따라 청소를 했다.³⁸⁾

일본군이 하루 1만 수송을 제안한 것은 이전부터 일본과 조선의 군사수송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일본군 1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영지가 갖추어져 있었다. 숙영지는 문현(5500명 수용가능), 서면(3000명 수용가능), 아카사키(1000명 수용가능), 부산진(2000명 수용가능)이 있었다. 미군과 일본군의 교섭

36)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339쪽.

37)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928~929쪽.

38) 森田芳夫 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2권, 巖南堂書店, 1979, 26쪽.

결과 9월 22일 제4부두를 사용하기로 했고, 대전과 경성의 군대가 일시 숙영할 곳은 서면과 부산진 숙영지로 결정되었다.³⁹⁾

초기 일본군의 이동은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걸어서 이동하거나 말을 타거나 트럭 혹은 철도를 이용했다. 하지 장군은 고즈키 장군에게 일본군의 이동을 통제하고 상황을 제24군단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군은 보유하고 있던 수송수단과 장비를 미군에 인계했기 때문에 부산을 목적지로 하는 일본군의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 철도로 진행했다. 제17방면군은 10월 1일까지 철도 이동을 조율했으나, 철도망은 혼잡했다. 일본군 부대는 철도에서 내려 곧바로 귀국선에 탑승할 수 없었다. 부산 시내나 부산 근교에 주둔하며 부산요새사령부의 통제를 받았다.⁴⁰⁾

10월 10일 자정을 기준으로 부산요새사령관의 부산 수송, 통제관의 임무는 해제되었다. 10월 8일 조선군사령관은 朝軍特命 제38호를 통해 부산지구의 수송처리 및 미군과 연락을 위해 부산지구에 군연락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부산연락부장으로는 久保참모부장을 임명했다. 부산연락부장은 군대가 부산에 도착하면 부산항을 떠날때까지 군대의 승선 순서 결정, 승선 지도 등 제반 사항을 담당했다. 군대가 전원 승선해도 정원이 차지 않으면 민간인도 승선시켰다.⁴¹⁾

2. 부산항을 통한 귀환

일본군은 9월 28일 수송을 시작했다.⁴²⁾ 조선 각지에 배치된 일본

39) 朝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9. 472, 575쪽.(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40)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 선인, 2014, 388~389쪽.

41) 森田芳夫 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1권, 巖南堂書店, 1979, 526~528쪽.

42)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1052~1053쪽.

9월 28일 3,674명, 9월 29일 5,436명, 9월 30일 1,146명, 10월 1일 4,802명, 10월 2일 2,641명, 10월 3일 5,362명, 10월 4일 2,581명, 10월 5일 4,065명을 수송한 기록이 있다.

군을 부산항으로 수송하고, 부산항에서 일본에 이르는 작전이다.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먼저 수송하고, 9월 29일 조군특명 제20호 <조선군관구명령>에 따라 대구이남 주둔부대의 귀환을 처리하도록 했다. 수송예정 인원은 10월 1일 밀양, 울산, 대구에서 3,940명, 2일 대구, 경주, 포항, 영주에서 3,970명, 3일 포항, 영천에서 4,600명, 4일 안동, 경주, 마산, 김천에서 4,110명, 5일 진주, 대구에서 4,200명, 6일 대구에서 4,000명, 7일 대구에서 3,980명, 8일 대구에서 2,700명이었다. 하루 평균 4천여명의 인원 수송이 준비되고 있었다.⁴³⁾

10월 6일까지 대구 이남 부대의 수송을 완료하고 7일부터는 대구 이북부대의 수송이 시작되었다. 대구 이남의 남은 부대는 7일부터 병행하여 실시했다. 대구이북 부대는 1일 8,000명 수송 예정이었다. 10월 6일 제2차 철도수송계획에 관해서는 미군과 협의를 해야 했다.⁴⁴⁾ 10월 6일 부산요새사령부는 부산-일본간 운행 중인 10척의 선박 중 소형선박 2~3척을 제주도 군대수송에 전용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민간인의 수송을 중지하지 않고 선박 운영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⁴⁵⁾

10월 5일 미군 제40사단 관할구역에 있던 일본군 부대가 모두 철수했다. 이에 따라 제40사단은 인천을 통해 철수할 2만명을 제외한 남한의 다른 일본군 부대를 귀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제40사단은 정읍, 전주, 군산, 대전, 그리고 그 밖의 주요 일본군 집결지에서 부산으로 병력을 이동시킬 철도 이동계획을 작성했다. 미군 제6사단이 남조선에 도착한 뒤에는 제40사단이 담당하던 지역에서 일본군을 귀환하는 임무를 이어받았다. 이 지역에는 광주, 목포, 전주, 정읍, 그리고 이리가 포함되어 있었다.⁴⁶⁾

43) 森田芳夫 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1권, 巖南堂書店, 1979, 524쪽.

44)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1054쪽.

45)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1055쪽.

전라남도 목포, 광주, 순천, 보성, 여수는 10월 8일 미군 제40사단이 진주하고, 다음으로 전라북도까지 주둔하면 경계를 인계하고, 일본군은 철수 수송을 시작했다. 1일 평균 8,000명 수송을 목표로 하여 호남선 철도수송을 준비했다. 미군은 석탄과 열차 등 교통국의 요구에 모든 것을 지원했다.⁴⁷⁾

대전과 인근지역에 주둔하던 일본군 수송은 인천항으로 결정되었다. 조선군사령부는 10월 4일자로 이를 결정하고, 미군의 함선을 이용해서 수송하기로 했다.⁴⁸⁾ 20여 척의 상륙용주정이 긴급히 투입되었다. 인천을 통해 철수하는 일본군은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담당했으며 이들이 경비하고 있던 시설은 미 제7사단이 인수했다. 상륙용주정 한척당 1천 명의 일본군과 이들을 호송할 소규모의 미군이 탑승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선단의 목적지는 사세보였다. 10척의 상륙용주정과 1만 명의 일본군으로 구성된 첫 번째 선단은 10월 11일 인천항을 출발했다. 10월 16일에는 1만 명을 조금 넘는 수의 일본군이 다른 선단에 탑승하여 사세보항으로 출발했다.

부산, 인천으로 일본군 귀환이 끝나자 제주도의 일본군 귀환이 시작되었다. 제주도의 일본군 귀환은 10월 23일 1,000명과 1,200명을 태운 두 척의 상륙용주정이 제주도를 출발해 사세보로 향했다. 마지막 수송선은 11월 12일 아침에 출발했다. 5만여 명의 일본군과 소수의 민간인이 귀환했다.

진해의 일본 해군은 별도의 수송체계를 갖추었다. 미 제7함대는 진해와 부산의 일본군 육상시설을 담당할 해군기지 점령부대를 예하에 두고 있었다. 9월 중순 해군 장교들이 육군의 정찰대에 합류해 부산으로 파견되긴 했지만, 진해와 부산 일대의 일본 해군 기지를 점령할 해군 부대는 미육군 제40사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천항을 출

46)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 선인, 2014, 394~395쪽.

47)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1029쪽.

48) 森田芳夫 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篇』1권, 巖南堂書店, 1979, 523쪽.

발하지 못했다. 미해군은 야마구치 제독 사령부와 연락을 유지했다. 야마구치 제독이 지휘하고 있는 기지와 시설, 탄약과 장비, 그리고 기뢰와 항해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본해군 병력은 진해에 집결하도록 했고, 10월 5일부터 귀환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틀 뒤에 제40사단 지휘소와 예하 포병 부대가 진해에 진주했다. 제40사단은 10월 31일 진해의 통제권을 인수했다. 대략 11월 15일경 일본인들을 진해에서 부산으로 보냈으며, 12월 1일에는 미해군이 처리하지 못한 7천여 명의 일본해군을 모두 귀환했다.⁴⁹⁾

미군의 보고서를 근거로 정리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 남부의 일본군은 1946년 4월 28일 귀환한 509명을 마지막으로 모두 철수했다. 179,278명으로 추산했던 일본군은 1946년 2월 최종 18만 1,321명으로 집계되었다. 귀환 일본군인 180,791명 남은 노동부대 509명을 포함한 수이다. 수송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선 남부 주둔 일본군 철수 현황

일시	부산	인천	제주	진해
9.28~9.29	10,333			
9.30~10.7	29,808			
10.7~10.14	20,923	9,976		
10.15~10.21	23,555	10,250		
10.22~10.28	5,056		20,499	
10.29~11.5	8,441		15,202	2,459
11.6~11.11	3,631		12,794	3,193
11.12~11.18	11		2,228	
11.19~11.25	333			
11.26~12.2	1,897			
12.3~12.9	58			
12.10~12.16	65			
12.17~12.23	33			
12.24~12.30	16			
12.31~1.6	30			
....	-			

4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 선인, 2014, 396~399쪽.

일시	부산	인천	제주	진해
2.11~2.17	21			
누계	104,211	20,226	50,723	5,652
합계	180,791			

출전 : 「Chapter X, Educating Japanese Troops(Maps, Appendices) Historical Manuscript Files, 1943-1948 [Entry NM3 488]

미군은 일본군을 사단 단위, 혹은 대규모로 한번에 이동시키지 않았다. 통제 가능한 수준의 집단으로 나누어 이동하고 소규모 집단조차 한번에 부산까지 이동하지 않았다. 10월 23일 조선 남부에 남아 있는 일본군 병력은 14,000명까지 줄었지만 각 부대의 본부는 조치원, 대전, 이리, 대구, 정읍, 광주, 여수, 목포, 부산 그 밖의 원 주둔지에 남아있었다. 잔여 부대와 그 외 시설의 경비나 노무를 담당하는 소수의 병력이 있었다. 10월 29일 보고서에 의하면 군사령부, 경성연락부 30명, 부산연락부 150명, 부산육군병원, 부산군무대 약 2,300명을 제외하면 조선 이남의 부대는 모두 귀환했다.⁵⁰⁾

11월 5일에는 미 제6사단 관할구역에 있던 모든 일본군과 부양가족이 귀환했다. 이 무렵에는 일일 귀환 인원이 평균 200명 수준으로 격감했다. 제24군단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거의 사라졌다. 제24군단은 예하 부대에 남아있는 일본군이나 일본 민간인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⁵¹⁾ 일본군 수송이 완료된 후 부산항을 통한 민간수송이 시작되었다. 조선 내의 일본인 귀환항은 부산으로 지정되었다.⁵²⁾

50)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 1권, 巖南堂書店, 1979, 532쪽.

51)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 선인, 2014, 387~389, 394~395쪽

52) 일본의 조선인들의 수송도 부산을 통해 진행되었다. 9월 1일 조선인 집단이입노무자를 우선적으로 계획 수송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통달되었다. 9월 12일 일본 철도총국은 당분간 부산항 연락선은 일반 여객을 정지하고 조선인 군인, 군속, 집단이입노무자 수송을 우선했다. 興安丸, 德壽丸으로 하카다, 센자키와 부산간 수송이 결정되었다.(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제24군단은 10월 4일 일본인 귀환 수송을 위해 일본군에 지원사항을 전달했다. 경성, 수원, 천안, 조치원, 김천, 대구, 부산, 이리, 광주, 여수(상황에 따라 인천, 군산, 목포)에 일본인 철도 집결지를 건설하고, 연락반을 배치하여 일본인 귀환을 지원하도록 했다. 일본군 수송에 이어 일본인 귀환을 위해서도 특별열차를 편성하는데, 이것은 군대수송에 준하여 입안했다. 오지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위해 철도 집결지까지 일본군의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했다. 특별히 미군 자동차 1,000량도 지원했다.

일본군 차량지원이 명령된 곳은 충청남도였다. 독립자동차 제65, 제70, 제82대대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을 대전으로 집결시켰다. 이때 경계병력 제224부대도 파견했다. 자동차 358대를 투입하여 총 5,287명을 수송하라는 명령이었다. 신탄진, 서천, 장항, 보령, 광천, 홍성, 예산, 송주, 강경, 논산이 대상지역이었다.⁵³⁾

IV. 맺음말

해방 직후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약 2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8만여 명이 조선 남부에 배치되어 있었다. 일본이 일본군을 가장 마지막에 수송하려고 했던 반면, 미군은 일본군을 가장 먼저 수송하겠다고 결정했다. 한반도에 주둔하던 군인, 군속 귀환 업무는 미군 산하 제24군단이 직접 담당하고, 미군정 군단의 작업을 지원하는 형태였다.

일본군 귀환은 철도와 선박을 이용한 수송 체계로 준비되었다. 귀환항은 부산항으로 지정하고, 여수항과 목포항의 사용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일본 귀환항은 하루 2,000~3,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하카다(博多)를 희망했다. 수송 개시는 미군이 상륙한 직후로 설정했

53) 森田芳夫 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1권, 巖南堂書店, 1979, 525, 527쪽.

다. 수송순서는 가장 먼저 진해와 부산지구의 해군, 두 번째는 부산 부근의 육군, 세 번째는 대전 이북의 육군, 마지막으로 기타 육군이였다. 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항공부대와 부상병이였다. 실행에 이르러서는 수송 순서도 변경되고, 귀환항으로 부산·인천·진해·제주가 지정되었다. 수송선으로는 기선, 해군 선박, 미군 상륙용주정을 동원해서 전개했다.

귀환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일본군이 철수하고, 잔무정리를 위해 일본군은 각 사단(사관구), 요새여단, 이에 준하는 부대는 각 소재지에 연락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경성과 부산에는 연락부를 두고, 천안·조치원·김천·대구·이리·광주·여수에는 연락반을 두었다. 연락부는 미군과 교섭, 일본측 기관과 연락, 북선탈출 군인과 군속, 가족 수용, 귀환, 일본인 보호와 세화회 원조 등을 임무로 했다.

일본군은 9월 28일 수송을 개시했다.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 수송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대구 이남 부대의 수송을 완료했다. 7일부터는 대구 이북부대의 수송이 시작되었다. 전남과 전북 준둔 일본군 철도를 이용해 부산으로 수송했다. 대전과 인근지역에 주둔하던 일본군 수송은 인천항으로 결정되었다. 부산, 인천으로 일본군 귀환이 끝나자 제주도의 일본군 귀환이 시작되었다. 진해의 일본 해군은 별도의 수송체계를 갖추었다.

부산에 주둔한 제40사단 제160연대는 부산항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일본군과 일본, 조선 민간인을 승선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미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6년 2월 22일까지 제160연대는 113만 972명의 수송을 시행했다. 조선으로 귀환하는 조선인 71만 536명,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본군 10만 2,984명, 일본인 31만 7,452명이였다.

‘안정적인 귀환’을 주도하고자 했던 일본측의 계획은 일정부분 미군이 수용했지만, 조선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귀환한다는 방침은 허용되지 않았다. 일본군을 가장 먼저 수송한다는 미군의 방침에 따라 대규모 군사이동이 시작되었다. 미군은 일본군을 사단 단위, 혹은 대규모로 이동시키지 않았다. 통제 가능한 수준의 소규모 집단으로 나

누었다. 조선 남부에 주둔한 미군은 가장 먼저 일본군 무장해제와 철수를 실시했다. 일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군정의 행정업무가 아니라 미군의 첫 번째 군사작전이었다.

투고일(2021. 3. 26.) 심사일(2021. 4. 21.) 게재 확정일(2021. 4. 26.)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한 미 제40사단 정보참모부 일일보고서(1945.9-1946.1)』, 1993.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4, 선인, 2014.
- 부산광역시, 『일본 방위성 소장 부산주둔 일본군 자료집』,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Ⅱ, 신우정판사, 2013.
-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駐韓美軍情報日誌 1, 1945.9.9.-1946.2.1』,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8.
-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朝鮮軍司令部, 『昭和20.9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 朝鮮軍司令部, 『昭和20.10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2)』,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602400)
- 朝鮮軍司令部, 『昭和20.10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3)』,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615700)
- 京城日本軍連絡部長,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0600)
-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関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 陸軍省, 「第17方面軍」, 『部隊行動表 昭和20年』,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20875800)
- 留守業務局鮮滿殘務整理部, 「朝鮮軍管區」, 『北方鮮滿部隊編成補充担任部隊一覽表 昭和22年4月』, 1947.(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10271000)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篇』 1~3권, 巖南堂書店, 1979.

-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송정현, 「미군정의 지방 통치 연구(1945-46)」, 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신재준, 「1945~46년, 在朝鮮일본인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 『군사』 104, 군사편찬연구소, 2017.
-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현실』 49, 2003.
- , 「해방 후 일본군 소속 조선인 군인의 歸路」, 『한국학논총』 34, 2010.
-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8, 2007.
-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 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2012.
- 조 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지속과 귀환」, 『한국학논총』 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 최영호,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일민족운동사연구』3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 「해방 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의 귀환」, 『항도부산』 24,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8.
- , 『일본인 세화회』, 논형, 2013.
- 황선익, 「中國 關內地域 日本軍 무장해제와 韓人 병사」, 『한국학논총』 44, 2015.
- 허준호,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2, 한국사회사학회, 2006.

<Abstract>

Transportation of Japanese army's Repatriation after liberation and Busan Port

Kim, Yun Mi

Japan expanded through the war. Imperial and colonists moved frequently within expanding imperial territory. This trend began in 1945 when the Japanese Empire collapsed. Population movements that took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changed into large-scale mass movements in an instant. It was also a realignment of the population.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overall return of Japanese troops stationed in the southern part of Joseon and re-examine the return of Japanese troops through the port of Busan.

Japan's plan to lead a "stable return" was partially accepted by the U.S. military, but the issue of Japanese troops remaining was not allowed. The movement began in accordance with the U.S. military's policy of transporting Japanese troops first. The U.S. military did not move the Japanese troops in divisions or large scale. Divided into groups of controllable levels. Even small groups did not move to Busan at once. U.S. troops stationed in the southern part of Joseon were the first to disarm and withdraw Japanese troops. It was not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 withdraw Japanese troops. It was the first U.S. military operation.

Key words: SCAP, GHQ, Japanese residents in Korea, 38th parallel, Japanese military stationed in Korean, Mobility, Border